

EYA 중국 도서 소개

안녕하세요?

EYA에서 보내드리는 2015년 8월 첫째 주 두 번째 중국어권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된 도서의 검토서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 newsletter@eyagency.com 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回到古典世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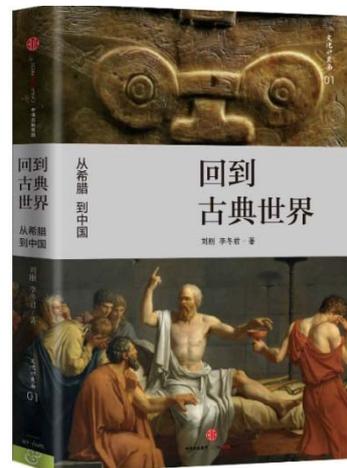
가제 : 고전의 세계로 돌아가다

저자 : 刘刚 리우강, 李冬君 이동진

발행일: 2015년 07월 01일

분량 : 408

장르 : 문화, 역사



동-서양 고전 문화의 대표 그리스와 중국의 문화 비교

고대 그리스에서 중국까지 한 번에 살펴 보는 고전 문화의 매력

<내용소개>

이 책은 동-서양의 대표격인 그리스와 중국의 고전문화를 시와 문학작품으로 분류해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서양파트는 그리스 민족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호메로스의 서사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등을 거쳐 알렉산더 대왕까지, 고대 그리스 그리스 민족의 자유로운 정신이 탄생하는 과정을 묘사해냈다. 한편 중국식 세계관은 중국신화와 선사문명부터 시작해 요임금과 순임금, 하상주, 제자 백가를 거쳐 진시황까지 서술하며 중국이 왜 전제 왕권체제를 향해 발전해 왔는가를 탐구 해낸다. 작가는 동서양 문화의 영역, 그리고 공생에 관하여 문화 형성의 근원부터 시작해 현대에 이르러 이 문화들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들에 대해 논설하고 있다. 동 서양의 시와 역사, 그리고 그들이 끼친 문화적 영향과 사상의 전파 이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이 책은 넓은 시야와 독특한 관점으로 단 한 권의 책에 고대중국과 그리스 모두를 다뤄냈다는 것부터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학생들을 비롯해 고전 문화 탐독을 즐기고 문학을 사랑하는 일반 대중

혹은 동 서양 문화를 비교하고 상호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까지 고루 만족 시킬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각 부분들은 짙막하고도 아름다운 글과 산문식 시로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도 매우 뛰어나다.

<저자소개>

리우강

저서로 <문화의 강산: 다시 읽는 중국>, <중국의 업적> 등이 있다.

리동전

중국 남개대학역사학부 교수이다. 저서로는 <찰나에 지는 꽃: 일본인의 정신적 바탕>, <공자의 축성과 유교혁명> 등이 있으며 <국권과 민권의 변주곡: 일본 메이지 정신의 구조>의 번역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목차>

서: 다시 읽는 그리스

1장: 그리스화된 세계관

1. 그리스 민족의 기원과 기록
2. 그리스 문명의 시작
3. 유색 금속이 만들어낸 고대국가
4. 목욕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
5. 신을 뛰어 넘는 정의

외

2장: 중국식 세계관

1. 구전신화와 글로 남겨진 신화
2. 중-서 문명의 영역
3. 문명의 요람
4. 5황제의 공화왕국
5. 신화로 시작해 역사가 되기까지

외

후기: 동 서양을 향해 나아가다